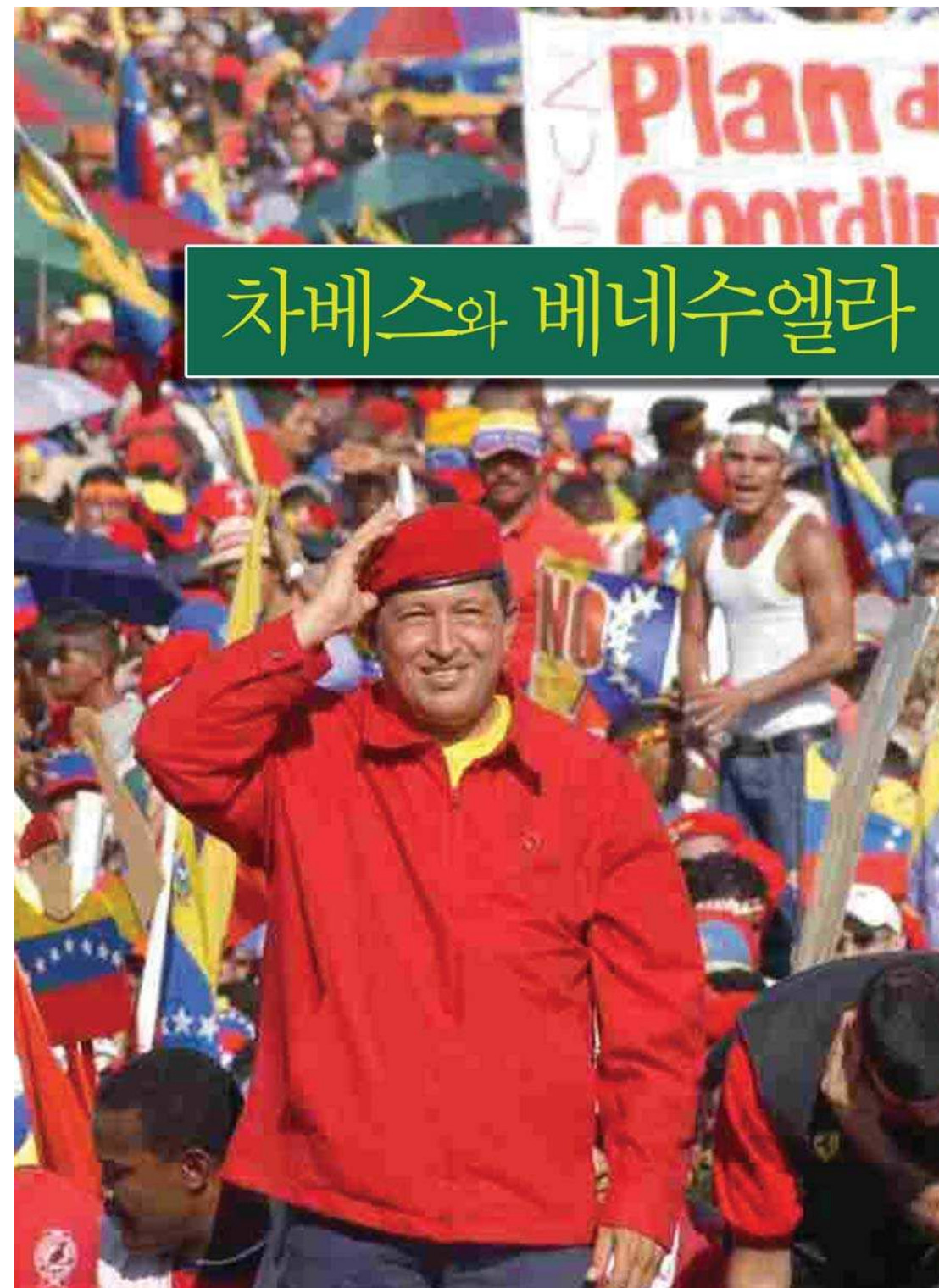


이 글은 그동안 격주 신문 <다함께>와 월간 <다함께>
에 실린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관련 글을 묶은 것이다.
글의 순서는 년도별로 정리하였으며, 부록에는 남미의
볼리비아와 모랄레스 관련 글을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 쿠데타를 좌절시킨 민중 봉기

지난 4월 13일 베네수엘라 빈민들이 쿠데타를 격퇴했다. 그 이틀 전에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축출하려 했던 쿠데타 시도는 고용주 조직이 군 장성들, 가톨릭 교회의 수장, 심지어 부패한 노조 지도자의 묵인 아래 만들어 낸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민중 봉기로 패배했다. 카라카스 외곽 언덕빼기 판자촌의 빈민 수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뛰어나와 쿠데타에 저항했다. 폭동과 약탈을 자행한 사람들도 있었고, 대통령궁과 주요 군사 기지를 포위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주요 TV 방송국을 장악한 사람들도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노점상, 공장 노동자, 가정부, 트럭 운전기사들”이 차베스를 방어하기 위해 봉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군부를 분열시켜 쿠데타 시도를 물리쳤으며 차베스를 권좌에 복귀시켰다. 쿠데타의 실패는 미국 정부와 조지 W 부시 일당의 심각한 패배이기도 하다. 남아메리카의 이 국가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5퍼센트를 공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부시 주변 인물 중 적어도 일부는 쿠데타 음모를 부추렸던 듯하다. 쿠데타를 모의하고 시도한 세력은 베네수엘라의 고용주들이었다. 그들은 차베스가 국영 석유

회사 이사진을 교체한 것을 빌미로 공장을 폐쇄했다. 주요 노조 연맹의 한 부패한 지도자는 중간 관리자와 경영진의 지지를 받은 공장 폐쇄를 “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자유노련(IFFTU)이 그를 지지했던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지난 주 공장 폐쇄 둘째 날 카라카스에서는 중간계급이 대거 참가한 차베스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더 소규모의 차베스 지지 시위대와 충돌했고, 총격전이 발생했다. 그러자 군부 내의 쿠데타 지지 세력이 “유혈 사태를 방지” 한답시고 개입했고, 차베스의 사임을 발표했다. 고용주 조직의 우두머리인 카르모나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포하고 국회를 폐쇄했으며 차베스 지지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다.

카르모나의 계획을 망쳐 놓고 그를 권좌에서 쫓아낸 것은 빈민들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쿠데타를 지지했던 많은 지배계급 인사들은 민중 봉기를 목격한 뒤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군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질까 봐 두려웠다. 그들은 또한 1989년의 거대한 폭동, 즉 “카라카소”가 되풀이될까 봐 두려웠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와 IMF의 긴축 조치에 반대한 빈민들은 자생적인 봉기를 일으켰다가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결국 진압당했다. 그런 혼란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으로도 군 수뇌부가 카르모나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차베스의 복귀를 발표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관건이다

쿠데타 다음 날 우고 차베스를 타도하려 했던 세력은 거리에서 저항하는 빈민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차베스를 설득해 그가 빈민들을 다시 달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덕분에 차베스는 복귀할 수 있었다.

쿠데타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군 사령관들은 이제 차베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그들은 차베스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건”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베스의 복귀 첫 마디를 들어 보면 그 스스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국민 화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회의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고용주들, 정당과 그 지도자들, 노조와 언론매체”가 포함될 것이다. 차베스는 길거리에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폭동과 약탈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사태를 반성합시다.” 그것은 길거리로 뛰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그들은 사장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쿠데타 시도를 묵인한 신문과 TV 방송국 소유주들에게 격분했다.

그들은 쿠데타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군 사령관들의 퇴진을 원한다. 지배층의 사회 통제 구조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의 힘에 도전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좌파가 했던 것처럼, 차베스에 의존해 상명하달식으로 활동해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쉽사리 편을 바꾸는 중간계급 군 장교들이 아니라 노동자와 빈민들이 수행하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취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이 결코 실업자와 반(半)실업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공격은 부자들, 다국적 기업들, 백악관의 부시 일당의 손에 돌아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공격받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권좌에서 쫓겨났다 복귀했다. 기성 언론들은 “사회주의 개혁”으로 민심을 잃은 “독재자”가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퇴진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것으로 보도했다.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러나 빈곤·불의·불평등 또한 엄청나다.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지주가 60퍼센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빈곤층이고, 국부의 40퍼센트를 외채 상환에 쓰고 있다.

1970년대에 들이닥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유가 폭락으로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노동자·농민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반면, 부자들은 석유 수입으로 부를 쌓았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민주당(COPEI)과 민주행동당(AD)은 중남미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20년 동안 중간 계급의 소득은 70퍼센트나 폭락했다. 부패에 찌든 기성 정당들은 무기력했다. 군부 내에서는 주로 뿌띠부르주아지 출신의 소장파 장교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했다. 1983년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차베스의 지도 아래 비밀리에 ‘볼리바르 혁명 운동’(MBR-200)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상은 민족주의와 갖가지 좌파 사상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카라카소”, 즉 빈민 대중의 자생

적 봉기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은 봉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민주행동당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부는 봉기를 유혈 진압했다. ‘볼리바르 혁명 운동’의 소장파 장교들은 카라카소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1992년에 페레스를 몰아내고 “명예롭고 애국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의 쿠데타는 실패했고 그 지도자들은 투옥됐다.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민중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 연맹 베네수엘라 노총(CTV)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총파업을 호소하게 한다거나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AS)과 급진당(Causa Radical) 같은 좌파 정당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으로 실패했다. 노동자의 18퍼센트를 아우르는 CTV는 철저하게 관료들의 통제를 받았다. CTV 관료들의 생활 조건은 대중의 실제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CTV 지도자들은 단지 압력용으로만 파업을 호소했고, 파업이 정치 투쟁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CTV는 “말 안 듣고” “분란을 일으키는”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사장들에게 넘겨 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MVR)이 출범했다. 군부 내 소장파 장교들과 그 밖의 다른 중간 계급 부문의 주도로 결성된 MVR은 공산당(PCV), MAS, 우리의 조국(Homeland for All:PPT)같은 상이한 좌파 경향들을 포괄하는 애국전선을 만들었다.

“볼리바르 혁명”

1998년 12월 차베스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제헌 의회를 구성해, 완전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자립을 강화

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헌법은 소위 “볼리바르 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결코 사회주의를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 노동자 운동의 촉진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의 몫을 더 늘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차베스는 “야만적인 신자유주의”를 비난했지만,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고 고용주들의 노동 유연화 전략에도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1999년에 차베스는 “국가가 필요한 만큼 시장도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추진한 개혁 입법의 일부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공기업 단체협약을 “국가 재정에 무책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파업을 금지할 수 있었다. 국가가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할 수도 있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차베스 정부는 유가 인상과 세계 경제 호전 덕분에 그런 대로 잘 나갔다.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의 사유화를 중단시키고 이 회사의 일부 소득으로 공공 지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래서 외채나 통화량을 늘리지 않아도 됐고, 자본가 계급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피할 수 있었다. 2000년 공공 지출은 42퍼센트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생활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2001년에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닥쳤다. 특히 빈민층이 고통을 겪었다. 환율은 늘어났고 볼리바르 운동에 대한 지지는 더욱 낮아졌다.

작년 11월 23일 차베스가 49개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는 시도였다. 많은 사회·경제적 개혁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개혁 입법 중에서 특히 세 가지가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정부가 유흥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거

나 지주에게 경작을 강제하는 “토지법.” 석유와 가스 부문의 외국 자본에 대한 세율을 16.6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고, 자국 내에서 채굴한 석유와 가스에 30퍼센트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소규모 어업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해안 지대 내의 대형 트롤 어업을 금지한 “해안지대법.” 페데카마라스(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나 부르주아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았고 “마르크스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사실, 그런 조치들은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간혹 선택했던 국가의 경제 개입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이 조치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사유화, IMF 긴축 조치, 시장 자유화, 모든 사회 생활에 도입된 시장의 논리, 특히 다국적 자본의 명령에 대한 굴종 등)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차베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투자를 중단하고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합법적인 방법과 “넙비” 시위나 12월 10일의 공장 폐쇄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 대항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12월 10일의 공장 폐쇄와 상가 철시를 두고 가당치도 않게 ‘노동자와 고용주의 연합 총파업’으로 묘사했다. 자본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차베스는 처음에는 공세적으로 나갔다. 그는 군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제의 개혁 입법을 고수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대중 시위를 호소했다. 12월 18일에는 농민들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은 국유화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격돌

그러나 반정부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2002년 1월 13일, 베네수엘라의 “유력” 일간지 〈엘 나시오날〉에는 “카라카스 군대 선언”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실

렸다. 차베스에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문이었다. 1월 23일에는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모두 거리를 점거했다. 그 시위에 자신감을 얻은 기독교층은 언론을 통해 차베스가 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그의 사업여부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떠들어댔다.

차베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테러와 싸우는 테러리즘” 이라고 비난하자 미국은 그에게 테러리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유가 하락과 국내의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이다. 지배 계급의 공세, 미국 제국주의 위협 등 안팎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한 차베스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2월 13일에 그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3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차베스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예산안을 22퍼센트 삭감하고 공공 지출을 7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콜롬비아혁명군과 연계 의혹에 시달린 내무 장관도 교체했다. 차베스의 양보를 목격한 지배 계급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베네수엘라 군인·언론인·야당 정치인들이 미국 대사관을 드나들면서 쿠데타 시나리오를 문의하는 등 차베스 축출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석유회사 경영진을 자기 주변 인사로 교체하자 이를 계기로 대중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결국 이번 쿠데타는 가톨릭 교회·부패한 노조 관료 집단 등과 손잡은 자본가 계급이 도시 빈민과 농민·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포퓰리스트 정부를 타도하려 한 시도였다.

월간 <다함께> 2003년 1월 호

차베스에 대한 도전

지난 주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지난 4월의 쿠데타 기도는 차베스 대통령을 겨우 3일간 몰아냈을 뿐이다.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에게 대통령을 복권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쿠데타 기도에서도, 차베스 반대파들은 스스로 ‘파업’이라 부르는 방법을 동원했다. 사실, 이 방법은 기업주들의 단체인 ‘페데카메라스’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사보타지하는 것이었다. 또, 이것은 주요노조연맹인 베네수엘라 노총(CTV)의 우파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시도는 10월 초에 몇몇 퇴역 장군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라고 군대에 호소 한 뒤에 나온 것이었다. 그 뒤로 이들 퇴역 장군들은 수도의 가장 사치스러운 지역에 있는 값비싼 호텔에 들어앉았다. 호텔 바깥 광장에서는 이들의 지지자들이 벌이는 시위가 지속됐다.

차베스반대파가 ‘파업’이라고 부른 것의 계급적 성격은 지난 주에도 드러났다.

반정부 신문인 <엘 유니베르살>은 카라카스가 마치 서로 다른 두 도시로 나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반정부 세력의 사보타지는 부유한 동쪽 지역에서는 완전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가난한 서쪽 지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많은 상점 주인들이 문을 닫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버스와 지하철을 운행했고 은행들도 대부분 영업을 지속했다.

주말에 <울티마스 노티시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영업 중단 자체는 정부를 사임시킬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부나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반대파들은 지난 금요일 사건을 이용해 이러한 지원을 얻으려 했다. 10월부터 시위가 계속 벌어진 호텔 앞 광장에서 지난 금요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네 명이 사망했다. 반대파들은 즉각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 뒤 이틀 동안 반대파 지도자들은 석유회사 관리자들, 기술자들, 경영진에게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설득했다. 월요일에 전국의 주유소에서는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도 위협받게 됐다.

차베스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상층계급의 시도를 “계급 투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한 그의 대응책은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 것이었다.

4월 쿠데타 시도 뒤, 그는 계속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국민 화합”을 요구했다. 미국이 쿠데타를 일부 지원했는데도, 그는 미국 정부에 석유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차베스가 말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그의 정부 재정은 정부 서비스 삭감이라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삭감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너스 지급이 취소됐다.

이 덕분에 부패한 우파 노조 지도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이 고용주들과 연합해서 차베스 정부에 반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 두 달 전에 차베스 정부는 만약 기업주들이 또 한 번 사보타지를 시도하면 자신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을 장악하라고 호소할 것이며, 기업주 없이 산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위기에 직면해서, 그의 주요한 대응은 군부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선장들이 유조선 운항을 거부하자 그는 군을 출동시켜 유조선들을 장악했다.

이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방법이다. 이것은 그가 점차 군 장교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유층 출신인 그들은 하루아침에 반대파 지지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군대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부패한 노조 지도자들은 그를 대중을 억압하는 독재자로 색칠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이런 식으로 우파 노조 지도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이 고용주 단체와 같은 편에 서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 차베스 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 상층 계급의 혐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 행동과 “화합” 논의가 뒤섞인 차베스 정부의 대응 앞에 쉽사리 무릎 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차베스가 물러나기를 원한다. 그의 좌파적 미사여구와 빈민층 지지 기반 때문에 미국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약 15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쿠데타가 실패한 뒤 조지 W 부시 정부는 공개적으로 차베스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중단했다.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내전이 발발해서 석유 공

급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이 석유 공급을 보장해 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남미 전역에서 좌경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 지도자 룰라가, 에콰도르에서는 좌파 군 장교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지난 12월 20일은 IMF 정책을 강요하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중 봉기로 타도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럴 때 베네수엘라가 급격하게 우경화하는 것보다 미국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함께〉 37호 2004년 8월 13일

위기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자신만만한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는 이번 달에 가장 큰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차베스의 등장 과정을 추적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살펴본다.

8월 15일에 베네수엘라인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레퍼런덤]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국민투표가 아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리고 차베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양측의 면면과 배경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의 우아한 교외 지역에서는 차베스의 이름을 입밖에 꺼내기만 해도 분노의 대상이 되거나 주먹다짐을 당할 지경이다.

그러나 도시 변두리의 가난한 노동계급 판자촌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고 거의 보편적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지배 계급들 사이에 계속된 대결의 최근 국면이다. 그 대결은 2000년 차베스의 재선을 계기로 시작됐고 2001년에 일련의

도전들을 거치며 이어지다가 2002년 중반에 차베스를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 기도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주들은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또 다른 기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했다. 그 때 이후 차베스 반대 세력들은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2백5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그들이 패배하고 차베스가 다시 안정을 확보하더라도 정부 전복 노력이 계속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노력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파괴적인 위기를 조장하더라도 말이다. 관돈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세계 석유의 약 13퍼센트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다. 1930년대까지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부분 두 미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석유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1958년부터 1994년까지 석유를 생산·수출해 벌어들인 소득이 3천억 달러나 됐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은 결코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1976년에 석유는 국유화됐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이를 통제했다.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원을 소유하게 된 국가는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부패와 정실주의의 상징이 됐다. 두 정당(민주행동당과 기독교민주당)이 권력과 이윤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이득을 본 것은 기업주들, 금융가들, 언론재벌들만이 아니었다. 중간 계급들과 전문직 종사자들도 석유 자금으로 매수됐으며, 석유업계의 노동자들도 고임금과 각종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소수였다.

일자리를 찾아 카라카스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수도 주변 진흙투성이 언덕 배기의 판자촌 말고 달리 구할 것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

거기서 그들은 도심에 새로 들어선 고층 건물들과 현대식 아파트촌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석유 호황에 최대한 접근한 곳이 바로 거기까지였다. 1980년대 중반에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6퍼센트가 극빈층이었다.

1989년에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그가 “대전환”이라고 부른 조치들을 도입했다. 그것은 시장 지향적 전환이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도입한다는 결정이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 노동자 대다수의 생활수준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페레스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와 폭동이 여러 날 계속됐고, 이는 나중에 “카라카소” 카라카스 반란 라고 불리게 됐다. 빈민과 실업자들이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페레스는 군대를 동원해 대응했고 수백 명, 어쩌면 1천 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었다.

3년 뒤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1992년 2월에 그는 반정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차베스는 새로운 종류의 군 장교와 민족주의자를 대표했고 경제 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차베스가 주로 영향을 받은 사상은 강력한 사회 변혁 의지를 가진 진보적 군인 집단이 위로부터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2년의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정부는 부패했고(페레스는 1년 뒤 탄핵당했다) 억압적이었다. 대중은 주기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직된 좌파는 대중의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듯했다. 1992

년에 그들은 차베스를 지지하는 어떤 의미 있는 대중도 동원하지 못했다.

차베스는 신속하게 패배당했고 투옥됐다. 베네수엘라는 급속히 위기로 빠져들었다. 비참하게 생활하는 빈곤층이 인구의 36퍼센트에서 66퍼센트로, 갑절로 늘었다.

베네수엘라의 부(富)를 지배한 자들은 국유화됐다는 석유기업의 중역들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다른 다국적기업의 중역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석유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을 역외 회사로 빼돌리고 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석유 산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부패에 공범으로 연루된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심지어 석유노조 지도자들조차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갖고 거액의 봉급을 받는 등 똑같은 부패 집단의 일부였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언론 매체는 엄청나게 부유한 네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 있었다.

자연히 대중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조율되거나 조직되지 않았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탄압이 뒤따랐다. 우고 차베스는 그런 정치적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 그가 “볼리바르주의” 철학이라고 부른 것을 운동에 제공했다.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해방 투사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그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었으며 다수의 빈곤을 대가로 부를 축적한 소수 엘리트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경제적 사보타주

1994년에 차베스는 석방됐다. 그가 마침내 1998년 선거를 통해 집권했을 때 도

시 주변의 쓰러질 듯한 “오두막집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차베스는 남부럽잖은 교육, 사회 개혁,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재분배를 약속했다.

2000년에 차베스는 재선출됐다. 그 전 해에 통과된 차베스의 새 헌법은 차베스와 국가의 수중에 권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증오를 샀다.

차베스가 재선출되자마자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회수했다. 언론은 공황과 위기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했다.

국영 석유회사 중역들은 석유노조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결탁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사보타주할 준비를 했다.

그것은 모두 2001년 12월 “기업주 파업”을 위한 준비였다. 고용주들은 가정용 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석유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다.

몇 주가 지나자 긴장은 더 고조됐다. 그러나 차베스는 지배 엘리트에 맞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2002년 4월 11일 우파는 쿠데타를 감행해 차베스를 체포하고 외딴 섬에 감금했다.

그 뒤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은 당시 대통령궁 안에서 촬영 중이던 아일랜드 TV 방송국 취재팀에 의해 카메라에 포착됐다.

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 지도자 페드로 카르모나가 새로 재단한 대통령 어깨띠를 두른 채 이제 자신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선포했다. 그를 에워싼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그의 승리를 축하하며 건배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통령궁의 창문을 통해 촬영하던 카메라에는 수백, 나중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천천히, 조용히 대통령궁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찍혔다.

그들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며 차베스의 복귀를 요구했다. 첫째 날 밤새 내내 군중이 계속 불어나자 쿠데타를 지지한 군인들은 당황했다. 그리고 보통의 사병들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틀 뒤 차베스는 의기양양하게 복귀했다. 그는 대중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03년에 일어난 두번째 “기업주 파업”은 노동계급의 저항에 부딪혀 패배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차베스 지지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차베스 자신은 브라질·에콰도르·아르헨티나의 새 “개혁” 정부들과의 동맹을 신뢰하는 듯했다.

이들 각국에서는 IMF와 국제 자본이 생존의 조건을 좌우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대중의 저항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좌절시키고 있었다.

두번째 기업주 파업 패배 뒤에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헌법에 따르면, 차베스가 집권할 때 얻은 59퍼센트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와야 국민투표를 통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위기에 처한 지배계급이 그들 자신의 민주주의 법규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민투표가 끝나면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차베스를 끌어내리려는 캠페인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8월 15일 이후 권력 투쟁이 심화할 때 볼리바르주의 혁명이 약속한 경제·정치 권력의 변화를 어떻게 관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차베스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 혼란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 5월 16일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장하라고 호소했다. 5월 30일에는 선거 과정을 존중하라고 호소했다.

대중이 더 잘 조직될수록, 주도력이 차베스 자신한테서 대중 운동으로 더 많이 넘어갈수록, 지배계급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

그러나 칠레는 핵심 교훈을 잘 보여 준다. 1973년에 진보적 지도자 살바도르 아옌데는 민주주의 법규를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유혈낭자한 쿠데타로 전복됐고 그 이후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억압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 편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해도 부르주아지는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복할 것이다.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이런저런 국민투표 결과가 아니다. 노동계급이 그 자신의 조직들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베네수엘라 혁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다함께〉 40호 2004년 10월 9일

남미의 새로운 반란

체 게바라가 꿈꿨던 남미 대륙 전체의 혁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지도력이 핵심 문제라고 크리스 하먼은 지적한다.

체 게바라가 살해당한 지 거의 40년 만에 새로운 반란의 물결이 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세 나라 — 에콰도르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의 정부가 자생적 붕괴로 무너졌다.

페루에서는 거의 독재나 다름없던 후지모리 정권이 몰락한 뒤 집권한 톨레도 정부가 경제 정책들에 반대하는 지속적 반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겨우 20개월 전에 선출된 룰라의 노동자당 정부의 정책들에 불만을 품은 새로운 좌파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던 군사 쿠데타가 두 차례 실패한 뒤 격렬해진 정치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물결은 겨우 4년밖에 안 됐다. 그 전 20년은 남미 대부분 지역의 좌파들에게 정말이지 쓰라린 시기였다.

1964년 브라질에서, 1973년 우루과이와 칠레에서,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 1980년 볼리비아에서 잇따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노동자 운동을 파괴했다.

1980년대에 다시 민간 정부들이 들어섰지만 손실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노동자 투쟁이 있었지만 수세적 투쟁들이었고, 경제 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은 투쟁의 성과를 도로 가져가 버렸다.

당시를 일컬어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는데, 40년 간의 간헐적인 경제 성장이 엄청난 외채 위기와 함께 끝나버린 시기였다.

1990년대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어디서나 지배계급과 그 참모들이 내린 결론은 국가 개입 위주의 낡은 정책들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전환해야만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대기업을 사유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 프로그램들을 해체하자 외국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와 사유화된 서비스들을 매입했다. 그리고 국내 자본은 외국 은행들의 안정성과 해외 주식시장의 이윤을 좇아 썰물처럼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 새로운 경기 후퇴 사이클이 시작됐다. 심지어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남미 대륙을 강타하기 전부터 그랬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추진하고 광범한 부문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형편없던 생활 수준이 훨씬 더 열악해진 것을 알게 되자 사회 밑바닥에서는 새로운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비록 그런 불만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었지만 말이다.

에콰도르

이런 불만이 처음으로 폭발한 곳은 2000년 에콰도르였다. 원주민 운동, 즉 파차

쿠틱(Pachakutik)이 조직한 수천 명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로 모여들었다.

국회의사당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들을 격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러들였다. 대통령 하밀 마우아드(Jamil Mahuad)는 도망쳤고, 군 장교인 루시오 구티에레스(Lucio Gutiérrez)가 원주민 지도자와 대법관과 함께 임시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봉기는 광범한 부문의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린 경제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 전 해에 경제 생산량은 7퍼센트 이상 급감했고 인플레이션은 6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한 마우아드의 대응은 긴축 정책의 고삐를 더한층 옥죄는 것이었다. 정부의 핵심 계획 중 하나는 에콰도르의 통화인 수크레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봉기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임시혁명위원회를 대체한 군 수뇌부가 마우아드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또 다른 신자유주의자 구스타보 노보아(Gustavo Noroña)가 이끄는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저항은 그 뒤 3년 동안 계속됐고 2001년 2월에는 무장 충돌을 포함하는 거의 봉기에 가까운 투쟁이 또다시 벌어졌다.

파업과 도로 봉쇄가 거듭됐고, 결국 200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구티에레스가 주도하고 원주민 동맹이 후원한 연합 세력이 신자유주의자들을 물리쳤다.

아르헨티나

2001년 12월 19~20일의 아르헨티나 봉기는 1930년대에 선진 공업국들을 강타한 것과 비슷한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은 상이한 집단들이 모두 자생적으로 뭉친 결과였다.

대통령 데 라 루아(De La Rúa)가 이끄는 급진당 정부는 모든 은행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예금을 사실상 몰수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봉급과 연금을 삭감한 뒤 실업자들이 대형 슈퍼마켓들을 약탈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하층 중간계급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나와 실직한 육체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이틀 동안 경찰과 유혈낭자한 충돌이 벌어져 약 30명이 사망했고 결국 데 라 루아는 헬기를 타고 도망쳤다.

4주 동안 대통령이 네 번이나 바뀐 끝에 노련한 페론주의 정치인 두알데가 반쯤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고, 18개월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 때조차 정부는 IMF와 외채 상환 조건을 둘러싼 최종 합의를 거듭거듭 연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야 했고 감히 수도에서 실업자 운동 피케테로스를 일관되게 탄압할 수 없었다.(2002년 여름에 정부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대중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혀 급히 후퇴해야 했다.)

볼리비아

2003년 10월 볼리비아에서는 젤리그나이트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 있는 강력한 폭약의 일종으로 무장한 광부 수천 명이 농민들, 원주민 조직들, 엘 알토의 거대한 교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수도 라 파스의 도심을 장악하자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테 로사다(Gonzalo Sánchez de Lozada)가 헬기를 타고 도망쳤다.

볼리비아에서 최초의 반란을 촉발한 것은 2000년 코차밤바 지역의 물 사유화였

다. 잇따른 저항 때문에 정부 — 군 출신의 독재자 대통령 반세르(Banza)가 이끌던 — 는 결국 사유화를 철회해야 했다.

그 뒤 3년 동안 투쟁의 물결이 잇따랐다. 거둬들인 도로 봉쇄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마비됐다. 2003년 2월에 봉기에 가까운 투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들] 삭감하자 수도에서 충돌이 잇따랐다. 경찰이 파업을 벌이고 정부 관공서들이 불에 났으며 헌병과의 충돌 외중에 33명이 희생됐다. 정부는 세금 인상안을 철회해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8개월 뒤에 봉기가 성공했다. 칠레를 통해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잇따랐다.

정부군이 시위대에게 발포하자 그 전 3년 반 동안 계속된 모든 반란이 하나의 운동으로 모아졌다. 이것은 산체스 데 로사다를 쫓아내고 유명 방송인 출신의 부통령 카를로스 메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기존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빈민들이 자신들의 정부로 여기는 정부를 지지하는 대중 반란이 두 차례 있었다.

첫번째는 2002년 4월 우고 차베스한테서 잠시 권력을 찬탈한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빈민들이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였다.

두번째는 8개월 뒤 고용주 ‘파업’ (사실은 직장 폐쇄)이 아래로부터 — 도시 빈민과 일부 노동자들의 — 활발한 투쟁으로 패배했을 때였다.

차베스를 전복하려는 노력들은 오히려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급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98년에 차베스는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선거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도 반자본주의적이지 않았으며 계급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순수한 형태의 부르주아 의회주의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는 새 헌법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차베스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빈민에게 유리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국영 석유회사(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다국적기업)의 이윤이 사회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회사 경영진을 교체하자 상층 계급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심지어 차베스를 전복하려는 최초의 쿠데타 당시에조차 많은 노동자들은 옛 정치권과 결탁한 부패한 노조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차베스에 대한 상층 계급의 공격은 그런 상황을 바꿔놓았다. 차베스 자신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 아주 관대했다.(차베스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대법원은 군대 내 쿠데타 음모자들을 석방했고, 신문들과 민간 TV 방송들은 정부를 음해하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내보냈으며, 여전히 상층 계급 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카라카스 시 경찰은 차베스 지지자들을 거리낌없이 공격했고, 이라크 전쟁 기간 내내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부분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 속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무리 민주주의, 민족주의, 베네수엘라 건국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의 유산 따위에 대한 얘기로 포장돼 있을지라도 현 상황은 분명히 계급 투쟁의 발전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부자들이 얼마 전 국민투표를 통해 또 한 번 차베스와 그가 상징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경제인 브라질의 [계급 투쟁] 발전 속도는 앞서 말한 네 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20개월 전 노동자당 정부가 선출된 것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반감이 대거 표출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를 통한 반대였지, 최근의 투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를 차지하려고 노력해 온 무토지노동자운동(Landless Workers' Movement)의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노동자당의 기원은 1980년대 말 상파울루 ABC 지역 금속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노동쟁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 지도부는 옛 독재 정권의 민간인 후계자들에 대한 의회 내 반대 세력으로 몇 년을 지내면서 차츰 길들여졌다.

그래서 룰라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시 집권 카르도주 정부가 작성한 IMF와의 합의안을 승인했고, 집권 후 오래지 않아 야당 시절 노동자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복지 삭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시위와 파업이 잇따랐고 노동자당 국회의원 네 명이 출당당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해방 당(Socialism and Liberty Party)을 새로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개량주의

봉기가 혁명의 발판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봉기 자체가 혁명은 아니다. 봉기에

참가한 대중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기성 체제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다. 그것은 기성 체제를 완전히 타도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나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봉기가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을 조성한 순간에조차 개량주의의 여러 버전들이 전면에 부상하는 막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케렌스키 같은 자가 더 나중 단계에서 레닌 같은 사람에게 길을 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반란들에서 개량주의의 새로운 변종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지금 혁명적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키르히너(Kirchner)는 페론주의당(Peronist Party) 소속이다. 10년 전 페론주의당은 당시 대통령 메넬의 신자유주의를 수용했었다.

그러나 지금 키르히너는 아르헨티나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IMF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야 하고, 노조 관료들에게 잘 보여야 하며, 좌파들에게 어떤 상징적 제스처를 취해야 하고(독재 정권 시절 살인 행위에 연루된 군 장교들의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것 따위), 실업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어야 한다(“고용 창출 계획”을 통해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이를 페론주의 조직과 피케테로 조직들이 분배하게 하는)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태도 덕분에 그는 지난해 선거 이후 잠시나마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좀 유약한 일부 좌파들한테서 약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볼리비아의 메사도 비슷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 간 저항 운동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정부를 개방했다.

코칼레로스(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 재배농들)의 지도자이기도 한 모랄레스는

메사 외의 다른 대안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메사와의 제휴를 정당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훨씬 덜 시달린다. 왜냐하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거리에서 싸운 대중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한 대중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좌파적' 제스처들은 대부분 주요 제국주의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브라질 농업 자본가들의 수출품에 개방함으로써) 브라질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조 관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요한 무토지노동자운동도 룰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에콰도르의 구티에레스는 지난해 IMF와의 새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 다수에게 환멸감을 안겨주었다. 원주민 단체들은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좌파들은 차베스가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의 압력에 떠밀려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전에 그가 룰라가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고 칭송한 데서 드러나듯이 차베스의 핵심적 태도는 여전히 개량주의이다.

대중 운동은 이런 전략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베네수엘라 사회를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전반적 전략 안에서 압력의 한 형태 구실을 할 뿐이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국가 기관들, 무엇보다도 군대 안에서의 책략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을 전역시키고 다른 장교들을 좌천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더 이상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베스의 통제력은 사소한 개혁들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혁명 자체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장교들을 붙잡아두는 것에 달려 있다.

그 때문에 제국주의와 부자들에 반대하는 그의 장광설에는 항상 그들과의 화해 제스처들이 뒤따른다. 그래서 그들이 선동하는 국민투표가 정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혁명을 향하여?

봉기들은 아직 혁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 패배를 당한 것도 아니다.

새로운 개량주의는 전면적 충돌이 아니라 대중에게 약속을 내놓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체제가 더 취약한 국민 경제들에 가하는 압력 때문에 그런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 올 것이다.

이 점은 외채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개량주의자들은 두 가지 상이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지배계급은 IMF와 은행들을 기쁘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대중의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키면 또 다시 대중 반란을 촉발할 수 있다.

혁명적 좌파는 새로운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4년 전 새로운 반란 국면이 시작됐을 때 혁명적 좌파는 취약했고 분열해 있었으며 흔히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겪은 대중 운동 패배의 경험 때문이었다.

이제 혁명적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청중이 광범하게 존재한다. 다양한

혁명적 좌파들이 볼리비아 노총(COB) 활동가들의 토론에서,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사이에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노조연맹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디서도 결정적 세력이 아니며, 개량주의나 반쯤 개량주의적인 사상으로부터 대중을 떼어내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노조 관료들은 사람들에게 키르히너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피케테로 운동 내부의 강력한 집단들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용 노동자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는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율주의적” 주장들을 펴기까지 한다. 즉, 각각의 그룹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와 결정적으로 대결하지 않아도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데스 산악 지대의 공화국들(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들, 즉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非)스페인어 사용자들의 운동이 새로운 반란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들은 3백 년 간의 식민 통치를 겪으며 사실상 노예로 전락했고, 독립 이후 거의 2백 년 동안에도 2류 시민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 굴욕에 시달려 왔다.

그들의 운동은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의 운동이나 오늘날 인도 달릿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일 뿐 아니라 존엄성과 인정 —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을 쟁취하려는 운동이다.

이것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배계급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적대감뿐 아니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에 대한 적대감으로도 쉽사리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억압에 저항하는 원주민 운동들과 제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과거에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와 동시에,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단결된 운동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대중 운동 활동가들은 차베스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르주아지와 우익의 실패한 공세를 자극한 것이 바로 차베스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베스가 기존 국가 구조를 통해 활동하기 위해 부르주아지와 거둬들여 타협하려 할 때 대중 운동은 그런 환상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볼리바르주의 혁명’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을 두 번이나 물먹인 대중 운동에 복수하려는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이웃 콜롬비아의 강경 우익 정부와 살인마 집단인 우익 민병대들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미의 사태 전개 속도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를 것이다. 내 생각에는 볼리비아·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가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정확한 패턴이 어떻든 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혁명가들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다함께〉 세계사회포럼 특집호 2005년 2월 19일

반란의 라틴아메리카와 좌파

〈다함께〉 기자 김용욱이 세계사회포럼에서 크리스 하먼을 만나 그에게서 라틴아메리카의 운동과 좌파 정치에 대해 들었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다. 국내에는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세계를 뒤흔든 1968》(책갈피),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 여러 권이 번역돼 있다.

Q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세 번의 봉기가 발생해서 신자유주의 정부를 전복시켰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를 타도하려는 우익 쿠데타를 저지한 봉기가 일어났으며, 브라질에서는 카르도주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반발로 중도 좌파 정부가 당선됐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사조인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기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멋진 대응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번 투쟁 물결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우루과이, 1973년 칠레, 그 뒤 아르헨티나, 그리고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패배 때문에 좌파 전체가 분열했고, 사기 저하했고, 일부는 매우 종파적이 됐습니다. 최근의 봉기들은 새로운 투쟁의 물결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정부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콰도르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아니라 거대한 운동이 전임 정부를 전복시킨 결과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과 우루과이 정부는 그 나라의 선거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에 맞설 준비가 돼 있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세계 체제의 요구에 신속하게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굴복은 완전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의 협상용 카드로 지난 2년 반 동안 외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단지 외국 자본의 압력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룰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대규모 산업과 수출 농업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쿤 WTO 각료회담에서 미국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브라질 정부는 국내적으로 소위 개혁, 특히 농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개혁은 과거에 양보했던 것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특징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정부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임 정부를 타도하는 데 참가했던 대형 자율주의 단체와 노동조합 중 일부가 지금 키르히너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노동자당(PT)이 대규모 산업 중심지에서 표를 잃었지만 소규모 산업중심지에서는 오히려 표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투쟁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PT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PT가 상황을 나아지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Q 브라질 룰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며, 급진좌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T는 원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대규모 파업 물결 속에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PT는 이전 노동조합보다 훨씬 전투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인 CUT에 기초해서 영향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룰라는 점점 우파 정당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룰라는 자기 정부에 기존 우파 정당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 룰라의 당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그는 서둘러 IMF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금융자본가들과 타협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 룰라 정부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연금을 삭감했고, 지난해 말 은행 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 투쟁 때는 사용자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룰라는 대학 개혁과 노조 관료의 영향력을 중대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룰라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개량주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룰라는 여전히 PT의 지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PT는 여전히 노동자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룰라가 연설했을 때, 청중 가운데 4분의 3이 룰라에게 박수를 보냈고, 4분의 1은 가만 있었고 아주 극소수만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차베스가 연설할 때, 어떤 사람들은 “Chavez si, Lula nao(차베스는 좋고 룰라는 싫다)”라고 외쳤지만 이 구호를 외친 사람은 전체 청중 가운데 절반에 불과했고, 이 구호에 적의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구호에는 모두가 함께 호응했습니다. 룰라 지지를 외친 사람 중에는 “100% 룰라”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은 “75% 룰라” 혹은 “50% 룰라”였습니다.

혁명가들이 룰라 정부를 대할 때 첫째, 이 정부가 자본주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본주의가 자기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사실상 돕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매우 많은 노동자들이 룰라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고, 자신들이 일정 정도 항의하면 룰라가 변할 것이고, 문제는 룰라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를 ‘배신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직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룰라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획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노동자단결당(PSTU) 같은 조직이, PT 당 안에 있거나 룰라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쟁에 연루시키고 그 속에서 룰라 정부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종파적 활동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PSTU는 자기 회원들을 주요 노동조합 연맹체인 CUT로부터 탈퇴시킨 후 새로운 노동조합 연맹체인 '투쟁 속에서' (Con Lutas)를 결성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룰라를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실천을 통해 그들을 PT로부터 견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Q PSTU는 어떤 성격의 정당입니까?

PSTU는 2천~4천 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입니다. PSTU는 모레노가 건설한 트로츠키주의 경향으로부터 탄생했고, 매우 전투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종파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노동자들의 개량주의 정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레노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개량주의 사상을 가진 노동자들이 대단히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고, 혁명가들이 이런 투쟁 과정에서 그 노동자들을 설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통 트로츠키주의' 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가들이 개량주의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트로츠키의 글을 전혀 읽지 않은 듯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라크 전쟁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혁명가와 비혁명가를 모두 아우르는 강령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이라크 전쟁 반대를 조직할 때, 우리는 SWP 당원, 무슬림 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노동당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조직했습니다.

Q 브라질 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와 자유의 당' (P-SoL)의 정치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PT가 창당됐을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어떤 이는 트로츠키주의자였고, 어떤 이는 노동자였으며, 어떤 이는 강단 맑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PT 안에서 조직된 경향으로 존재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에 기반하고 있는 조직된 경향 중 하나가 사회주의좌파운동(MES)입니다. 또 다른 경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DS)인데 이들은 제4인터내셔널과 기타 조그만 단체들에 연결돼 있습니다.

2년 전 룰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이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엘레나 엘로이사라는 한 상원의원과 세 명의 의원들이 이 개혁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 때문에 PT로부터 축출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룰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을 수 있는 정치강령에 기초해서 새로운 선거 정당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트로츠키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DS 출신이고(DS의 나머지 회원들은 PT 안에 남아 있습니다), 루치아나 젤로는 MES 출신입니다. 또 다른 의원인 바바도 트로츠키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혁명적 개량주의자' 라고 부르는 독립사회주의자들, 맑스주의 지식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P-SoL이 직면한 진정한 시험은 PT에 환멸을 품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와 아직 PT와 결별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계속 개방적일 수 있는지입니다.

PT의 한 저명 인사가 지난 주말에 세계사회포럼에서 자신을 포함해 1백여 명이 PT를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P-SoL 전당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아직 P-SoL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SoL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집단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SoL 강령은, 올바르게도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도, 개량과 혁명 중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맞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단계에서 이러한 입장은 옳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혁명적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틀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러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그 당 안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자기 사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번 혁명이나 개량이나 하는 논쟁으로 당의 모든 일상과 모임을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Q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에 대한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그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베스는 6년 전에 권력을 잡았고, 특히 헌정 개혁과 토지 관련 개혁 등 작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베네수엘라 상층 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의 격렬한 적대에 부딪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계급 분열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부촌은 빈민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불과 2백 미터 떨어진 곳에 판자촌이 있습

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빈민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은 베네수엘라 부르주아지와 상층 중간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베스가 이것을 위협하자 그들은 두 번이나 차베스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차베스를 전복하려 했을 때, 차베스 전복에 반대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차베스는 점점 급진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의 정부는 상층 중간계급과 지배계급을 가만 놔두었습니다.

그는 석유 수입 중 일부를 취해 정부 재정을 늘렸고, 이것을 사용해 보건소, 빈민을 위한 학교 등을 포함하는 '미시오네스(misiones: 복지 시설)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계급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빈민을 돕는 일종의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국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육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차베스는 육군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았지만 육군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동적 장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작은 개혁에 찬성하는 장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계급 출신이거나 혹은 중간계급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개혁에는 꽤 낯치 않지만 베네수엘라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혁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베스가 빈민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베스 정부에서 잠시 장관직을 지냈던 한 활동가와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베스는 말을 진짜 잘 한다. 하지만 그의 정

부는 아주 나쁘다.”

Q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일련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량주의 정부들이 들어섰습니다. 대륙 혁명은 계속 나아갈까요?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들이 새로운 투쟁 물결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력을 대변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전에 정치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봉기에 참가했고, 그 뒤로 계속 정치적으로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직, 일례로 아르헨티나의 피께페로스 등이 생겨났습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봉기의 원동력은 많은 부분 스페인어를 말하지 못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던 원주민들, 즉 부적절하게 ‘인디언’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동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운동은 정말 완벽하게 새롭습니다. 저는 6년 전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운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소규모 단체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혁명 조직은 붕괴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은 운동에 적극 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은 열망과 지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뒤섞여 있습니다.

2년 전에 “룰라! 룰라! 룰라!”를 연호한 사람들이 지금 “차베스! 차베스! 차베스!”

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고, 누군가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베스 정부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투쟁에 개입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혁명가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문제점은 1960~70년대의 혁명가 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20여년의 패배를 겪으면서 체제에 흡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옛 게릴라들이 지금 신자유주의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장관은 30년 전에 게릴라였습니다. 이것은 패배에 대한 한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지독한 종파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경직돼 있고, 다른 조직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칠 뿐 누가 실제로 그것을 들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파주의는 브라질의 일부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며, 새로운 운동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는 볼리비아의 오래된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새로운 운동의 일부는 자율주의 사상으로 흡수되는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게릴라 조직들은 모두 스탈린주의나 마오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혁명 조직들이 활동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정당이 독재와 위계질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주의자들은 “국가도 조직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중요하게 되면, 그들은 국가에 타협하거나 개량주의적 해결책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Q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중 일부는 미국 제국주의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더 나아가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므로, 혁명을 더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라크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할 처지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북미는 라틴아메리카에 보통 간접적 방식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그들은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를 침략했고, 20세기 초에 쿠바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보통 그들은 토착 지배계급과 함께 대중 운동을 공격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는 미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전쟁에서는 미국의 돈을 받은 암살단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군과 준군사조직 등 주로 토착 지배계급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칠레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는 칠레인이었고, 물론 미군이 일정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대중 운동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민족주의적이며, 실제로는 토착 지배계급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른 것인데도 문제를 라틴아메리카대 미국의 구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보호자처럼 행동합니다. 미국은 만약 자기 지배계급의 이윤이 걸려 있으면 토착 지배계급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핵심적 문제는 국내 세력관계입니다.

베네수엘라 쿠데타는 미국 정부 일부의 지지를 받은 토착 지배계급들이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부는 그들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문제는 내부 계급투쟁입니다.

물론 이라크에서 미국의 취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여전히 국민 중 30~40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 어느 순간 차베스 전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래에 언젠가 콜롬비아 군대를 이용해서 차베스 타도를 도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 철저하게 발목이 잡혀 있고, 국제 유가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시 말해 우리는 혁명적 과정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좌파들이 “우리는 절대 혁명적 과정을 전진시키면 안 돼.” 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주요 인사인 에보 모랄레스는 원주민 운동의 핵심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현 볼리비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혁명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전혀 개입할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의 일부 좌파는 사회 운동과 당 운동을 구분하고 나서, 사회 운동이 당 운동보다 우월하며 당 운동이 사회 운동에 ‘간섭’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간섭’의 예로 영국 SWP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회 운동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기 마련입니다. 동질적인 사회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을 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파업에서 피켓라인은 사용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버리고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장들이 아닙니다. 피켓라인은 사장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다른 사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지 노동자들이 토지를 쟁취하려 할 때, 일부는 싸울 것이고, 일부는 기존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운동 안에 정치적 논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사 자신이 그것을 정치적 주장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정치적 논쟁은 정치적 논쟁입니다.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정치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치적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힘차게 싸우지만 개량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규모 압력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체제를 타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집단이 참가하는 사회 운동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직돼 있기 때문에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도 조직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NGO들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운동을 건설할 때 NGO들은 보통 개량주의나 ‘압력 넣기’를 지지합니다.

지도자들 중 일부가 더 나아가기를 바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돈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너무 나아가지 않으면서 운동을 조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우리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카페 반대편에는 매우 고급스러운 호텔이 있습니다. NGO들은 바로 저런 곳에 묵고 모임을 가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싸구려 호텔에 묵고 모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고급 호텔에 묵는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개입은 허용되는 반면, 실제로 노동자와 농민의 삶과 함께 하고 싶은 우리들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혁명가들)는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수인 척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을 건설할 때 SWP뿐 아니라 공산당 사람들, 노동당 사람들, 무슬림 단체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반전 운동은 혁명적 강령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 반전 운동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운동 안에서 논쟁하고 우리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의미하는 것은 개량주의 정치만이 유일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개량주의를 싫어하지만 결국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에 조직적으로 도전하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볼리바르 혁명의 두가지 미래

마이크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의 운동 앞에 놓인 선택을 고찰한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7년 동안 우고 차베스는 세 차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것은 군사쿠데타 기도, 기업주들의 파업, 그리고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였는데, 차베스 반대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차베스 지지파가 거둔] 각각의 승리는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의 대규모 동원 덕분에 가능했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차베스를 방어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차베스 자신이 볼리바르 혁명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 운동이 우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초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같은 곳의 대중 운동을 고무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의 상황은 약간 다르다.

차베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엄청난 이윤 덕분에 의료 시설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토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산업의 일부가 국유화됐고, 볼리바르 혁명을 선전하기 위해 새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은행은 여전히 사유 자본가의 수중에 있고, 이들은 정부에 대한 대출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산업과 토지의 사적 소유는 위협받지 않았고 우익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한 언론사들도 그대로 존재한다.

차베스는 부패한 옛 베네수엘라 정치체제에서 특권을 누린 이들 중 상당수를 자기 정부 내부에 남겨놨다.

분명 차베스에 대한 지지는 견고할 뿐 아니라 늘고 있지만, 볼리바르 혁명을 방어하면서 성장한 기층대중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 때문에 당황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볼리바르 혁명은 이들 기층대중 조직들에 달려있는 듯하다. 그러나 권력은 이들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 있다.

철저하게 부패한 베네수엘라노동총(CTV)을 대체해 결성된 새로운 전국노동조합연맹(UNT) 내의 논쟁이 중요하다.

지난 7월, 주로 UNT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4백 명의 대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권력이 반드시 노동계급의 수중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회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스페인 총리 사파테로는 차베스를 열렬히 지지하지만 그의 사회당은 자본주의의 개혁을 옹호하고 시장을 지지한다.

현재 볼리바르 혁명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듯하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인간화하고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세계시장과 협상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자원을 생산한 사람들이 그 자원을 직접 통제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서로 다른 두 관점 사이의 투쟁이 볼리바르 혁명의 진정한 모습이다.

〈다함께〉 71호 2006년 1월 14일

라틴아메리카 사회포럼이 열리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12월 4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는 예상한 결과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동시에 나왔다. 예상한 대로 친차베스 정당들이 압승을 거뒀다.

한편, 예상치 못한 점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이것을 두고 부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우파들은 자신들의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성공했고, 이번 선거 결과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임스 페트라스가 지적했듯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미국 선거에 적용한다면 많은 의회·지자체·주지사 선거가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차베스 ‘직계’ 정당인 제5공화국운동이 얻은 득표수는 1998년과 2000년 선거 때보다 많았다.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면, 보이콧 캠페인으로 투표를 안 한 사람의 수는 유권자 중 6퍼센트밖에 안 된다.

“엘리트와 상층 중간계급 거주지에서 투표율은 1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반면

에, BBC 보도를 보면 많은 대중 거주지의 경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빈곤 인구 중 과반이 투표에 참가했고, 그 중 90퍼센트가 차베스 정당에 투표했다.”

우파들의 캠페인은 실패했다. 이것은 2002년 쿠데타 실패와 2004년 국민투표 패배보다 파장은 작지만 분명히 우파들이 또 한번 좌절을 겪은 것을 의미한다.

덕분에 차베스는 ‘볼리바르주의 혁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차베스 정부는 31개 유전에 대한 준(準)국유화 조치에 들어갔고, 석유 다국적기업들은 세력균형상 싫든 좋든 새로운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차베스 개인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은 다름 아니라 역동적인 운동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2002년 쿠데타 좌절, 2004년 국민투표 승리, 2005년 선거 승리도 모두 대중이 투쟁의 기세를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이런 운동과 차베스 정부의 관계는 다소간 모순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차베스는 체제의 혁명적 전복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대중적 분노와 운동의 힘을 이용해서 우파들을 입 다물게 만들고, 개혁에 늘쩍지근한 국가 관료들을 움직이게 만들 압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런 운동을 기존 국가 조직을 개혁하는 틀 내에 한정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의자인 마이클 엘버트가 한 베네수엘라 관료를 만났을 때, 그는 엘버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고무적인 사례를 조성해서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최근 국가가 공장을 인수한 사례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이

들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전략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 정세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고, 국제 유가가 높고, 국내에서는 베네수엘라 우파들과 국가 관료들이 대중 운동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민중이 겪는 일상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있다. 대중은 매일 매일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내린 법령이 실제로 현실이 되느냐는 지역 대중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지방관료들은 이런 투쟁에 우호적이지 않다. 엘버트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20~30년 간 일해 왔고, 그들 중 약 60퍼센트는 정책마다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에는 지방관료들이 파업하는 버스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핵심인 무력 기구의 움직임에 있다.

〈민족21〉 1월호에 실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 ‘반미’ 노선은 성공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민경우는 차베스의 지지기반이 군부이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사회주의’와 ‘반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슷한 사례로 북한을 함께 언급한다.

물론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군부를 무력화시키거나 우리편으로 견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최악의 반동 장교들은 대부분 숙청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기본 틀 내에서 군대 기구 전체가 급진적 개혁에 계속 지

지를 보내리라 믿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래로부터 공장 접수 운동 등이 계속 확대되면 분명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투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지도자의 의도가 좋더라도 단지 자본주의 국가 틀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세계사회포럼은 베네수엘라의 대중 운동에 국제적 연대의 인사를 보낼 기회이자, 볼리바르주의 혁명의 전략을 평가하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함께〉 73호 2006년 2월 11일

저항의 나라에서 세계사회포럼이 열린다

지난 주[1월 24~29일] 세계사회포럼(WSF) 내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혁명' 이었다.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렸다. 개최지가 카라카스였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더 나은 세계가 필요한 이유만 토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토론했다는 뜻이다.

이전 세계사회포럼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중요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쟁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온 수많은 참가자들이 그런 논쟁들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

수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참가해 세계사회포럼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다. 토론은 거리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주민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층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것은 대부분 그 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때문이었다. 어느 국가 수반이라면 청중이 가득한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21세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나 죽음이나’는 구절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현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죽음이란 인류의 죽음을 뜻합니다. 자본주의는 지구와 환경, 바다와 숲 속 생물들을 죽이고 있고, 강과 호수를 말라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파괴적인 방식은 지구의 생명체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말했듯이,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차베스는 해마다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이 “논쟁은 있지만 결정이 없는 토론 광장”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중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차베스의 말 때문에 그 논쟁이 세계사회포럼 기간 내내 되풀이됐다. 그러나 한 가지 모순이 있었다. 차베스는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자신이 “아주 가깝다”고 말하며 그를 칭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지도자 룰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미국이 점령한 아이티에 군대를 파병해 브라질 대표단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차베스는 단일한 반제국주의 전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급진적인 새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칠레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동맹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서에 어긋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하기’라는 회의에서 현지 연사들은 베네수엘라 혁명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그런데 전에 게릴라 전사였고 지금은 카라카스의 바리오(빈민촌)에서 활동하는 한 활동가는 차베스가 두 개의 적 — 미국 제국주의와 부패한 옛 국가 관료 집단 — 과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이 둘 다에 도전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기에는 모든 형태의 투쟁 — 강력한 노동조합, 민중 권력과 민병대 — 을 건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 주 목요일[1월 26일]아침 민중 권력 건설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변의 힐튼 호텔과 야릇한 대조를 이룬 곳에서 열린 그 토론회에서는 자리가 모두 차서 사람들이 서 있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지난해 6월 볼리비아 봉기 당시 탄생한 민중의회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중 혁명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몇몇 연사들은 작업장과 지역에서 의회를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런 의회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인) 토착민들, 무토지 [농업]노동자들과 빈민촌 사람들을 조직 노동자 편으로 함께 끌어들여야 한다.

브라질의 급진 좌파 정당 P-SoI(사회주의해방당)의 브리스 브라가투는 룰라가 은행가들과 부시, 대기업에 양보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판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좌파들이 중도좌파의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P-SoI 같은 급진 좌파 정당들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다른 곳에서는 브라질에서 온 MST(무토지농민운동) 대표자 한 명이 룰라의 전력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나라의 노동계급과 사회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행선지를 정하고 내릴 때를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정당 [건설]호소에 동참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주 화요일 10만 명이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투쟁들의 단결을 요구하는 3천 명 규모의 강력한 시위대는 훨씬 더 활력이 넘쳤다.

행진에서 무토지 노동자들은 마체테타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벌채할 때 쓰는 큰 칼을 휘둘렀다. 그들 중 일부는 대지주가 소유한 유희지를 점거했다가 주 방위군에 의해 체포돼 구타당하고 고발당했다. 그들은 아라쿠이 지역의 우익 지방정부가 그런 토지 점거를 막기 위해 강요한 비상사태를 철회시키라고 차베스에게 요구했다.

빈민가에서 온 젊은이들은 은행과 맥도날드 가게에 스프레이 칠을 했고, 볼리비아 대학에서 온 한 페미니스트 집단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민중 권력을 건설해야 한다”, “여성들의 혁명 없이 사회주의 혁명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모두 차베스와 그가 가져온 변화들을 지지하는 대중의 열정을 공유했다. 세계사회포럼은 많은 제안들을 지지했지만, 무엇보다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3월 18일 국제 행동의 날을 지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각료들은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라크 저항세력 때문에 조지 W 부시는 당장 차베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자매·형제들과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3월 18일에는 함께 행진해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선 공동의 투쟁들 사이의 결합을 심화시켜야 한다.

<다함께> 74호 2006년 2월 25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평가와 전망

‘21세기의 사회주의’, ‘혁명 속의 혁명’을 주창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국내외 좌파들 사이에서 큰 인기가다.

차베스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며 이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하겠다고 호언했다. 지난해 말 미주 정상회담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우리 미주 민중이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매장했습니다!” 하고 외쳐 시위대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 차베스는 광업 국유화 방침을 확정했고, 노동자들이 직장폐쇄에 맞서 장기간 점거한 공장들을 국유화했다.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빈농과 농업 노동자들에게 재분배했다(유상 몰수, 무상 분배).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쳐 1백50만 명에게 읽고 쓰기 교육을 제공했고, 빈민가 아동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빈민가에 보건소 3백 개를 설립해 무상의료를 제공했고, 무료급식 시설도 설립했다.

각종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 소규모 기업이나 노동자·여성

협동조합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을 설립해 그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각종 개혁 정책들 때문에 차베스와 ‘볼리바르 식 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모델로 보고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임승수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교육선전부장도 ‘볼리바르 식 혁명’을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진정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 〈이론과 실천〉 2005년 11월호).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막강 파워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대는 마당에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격변이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의 수많은 피착취·피억압 대중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허튼소리나 몽상만은 아님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볼리바르 식 혁명’의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주요 생산수단은 여전히 소수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 CANTV와 카라카스의 전력회사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스페인 자본이나 다름없다.

또, 베네수엘라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도 여전히 있다. 대다수 국가 관료들은 ‘볼리바르 식 혁명’에 반대한다. 그들의 부패와 부정비리, 비효율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베스는 기존 국가기구와 별개의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해 자신의 사회 개혁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면서, 부르주아 국가기구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

한편, 차베스가 공수부대 중령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군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

다는 점이 ‘볼리바르 식 혁명’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2002년 쿠데타 뒤 우익 군장성들이 제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장교들은 상층 중간계급들과 사회적 특권이나 인적 유대 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혁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차베스 전복 음모에 앞장섰던 주요 언론 매체들(그 중 하나는 조지 부시 1세의 낯시 친구가 소유하고 있다)도 거리낌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세 차례의 주요 정치적 전투(2002년 4월 군사 쿠데타 기도, 2002년 말~2003년 초 직장폐쇄 또는 사보타주,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뒤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언젠가도 차베스 정권을 전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요컨대,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고 사회와 국가기구의 구조도 바뀌지 않았다.

차베스는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석유 판매 수익덕분에 국내 자본가 계급의 이윤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차베스는 이런 세계 시장의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볼리바르자유무역지대(AIIBA : FTAA의 스페인어 두문자어 AICA를 패러디한 것)를 주창해 왔다. 그러나 AIIBA 같은 지역 경제블록도 세계 시장의 교역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런 규칙 때문에 결국 자국 노동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IMF에 대한 외채 상황을 지속했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도 베네수엘라 기업주들의 단체인 페데카마라스(상공회의소) 인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소유권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파업, 공장 점거, 임금인상 투쟁, 노동조합 승인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 토지 점거 등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볼리바르 식 혁명’이 진

정한 혁명으로 나아가려면 이들 노동자·민중이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자체 조직화를 통해 자본과 국가 둘 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7월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하는 새 노총 UNT의 일부 지도자들과 혁명적 정치를 주창하는 정치세력들이 모여 ‘혁명과 사회주의 정당’ (PRS) 창설을 선언한 것은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이 당장 무장 봉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며 투쟁에 나섰던 민중 운동 세력들이 한데 뭉쳐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일반 병사들을 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존의 국가기구와 자본의 지배력에 맞서는 대항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국가와 자본을 모두 전복할 수 있다. 어떤 혁명적 과정도 이 최후의 대결을 회피한 채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위대한 프랑스 혁명가 생 쥐스트가 말했듯이, “혁명을 반쯤만 하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다.”

차베스의 좌경화와 제헌의회

임승수 부장은 차베스가 “대통령 되기 전에 [혁명] 시나리오 다 짜놓고 미친 듯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민중의 소리〉 2006년 2월 13일 인터뷰 기사).

그러나 칠레의 언론인 출신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중참여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차베스의 주요 정치자문역을 맡고 있는 마르타 하네커도 지적하듯이, 처음에 차

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들을 ‘제3의 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98년 대선 당시 차베스는 제3의 길 정책을 약속하며, 자신의 정견 발표장에 은행가들과 투자가들을 초대했다. 당선 뒤에도 그는 ‘볼리바르 식 혁명’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어떤 것이라고 주장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세 차례의 주요 정치적 전투에서 승리한 뒤 점차 왼쪽으로 이동해 왔다. 특히, 2002년 말~2003년 초 자본가들의 직장폐쇄·사보타주가 실패한 뒤 기존의 부패하고 관료적인 어용 노총(CTV)이 몰락하고 전투적인 현장의 압력을 바탕으로 새 노총(UNT)이 결성되는 등 노동자·민중의 기층 운동과 적극적인 대중 동원이 활성화한 것이 차베스의 좌경화를 촉진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자본주의를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비난했고, 2005년 초부터 “21세기의 사회주의”를 말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차베스의 좌경화는 베네수엘라 국내 계급투쟁의 격화와 기층 대중의 동원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차베스 나름의 반응이지 그 역이 아니다.

임승수 부장은 또 차베스의 제헌의회 전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진보진영(특히 민주노동당을 염두에 두는 듯하다)도 제헌의회 전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1999년 제헌의회가 선출되고 그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선에서 차베스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했지만, 그것이 2002년 군사 쿠데타나 2002년~2003년 초의 직장폐쇄·사보타주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임승수 부장도 인정하듯이, “‘볼리바르 식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보장

한 대통령 소환투표”는 “보수반동 세력들이 무기로 사용”한 “양날의 검”이었다.

사실, 부르주아 의회는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사회의 진정한 권력은 의원들이 아니라 자본과 물리적 폭력 기구(경찰·군대·감옥 등)를 독점하는 자들에게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의회는 비록 근본적 사회변혁 운동가들이 반체제 선전을 위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본질은 부르주아 지배자들이 피착취·피억압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속임수 도구이다. 또한 자본주의 의회는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가 분출할 때 그것이 사회의 근본 변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완충장치 구실을 할 뿐이다.

부록

〈다함께〉 17호 2003년 10월 18일

자연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저항

볼리비아의 노동자와 농민은 풍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세계적 기업에 팔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무려 한 달째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수출 계획의 핵심은 퍼시픽 LNG이다. 퍼시픽 LNG는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레프솔 석유가스회사와 영국의 BP(브리티시 피트롤리엄)와 영국가스가 핵심 구성원인 컨소시엄이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LNG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이 LNG를 멕시코와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의 최빈국으로, 전체 국민의 70퍼센트가 하루 2달러인 공식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곤살로 산체스 드 로사다 대통령의 정부는 파상적인 대규모 사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전에 “구조조정”으로 불렸던 것을 이름만 바꾼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축 전략” 때문이다.

정책의 이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사유화와 복지 삭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LNG 수출 계획은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시위대들은 전국의 거리를 점거했고, 학생들은 수도 라 파스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교사와 그 밖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위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사용했고, 군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50명이 사망했다.

시위대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LNG 자원이 볼리비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산체스는 “LNG 수출 계획을 연말까지 보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조합들은 단지 LNG 수출 계획뿐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자체가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산체스는 대기업 소유주다.

〈다함께〉 18호 2003년 10월 25일

돌과 몽둥이로 탱크를 무찌르다

이번 봉기는 지난 9월 20일 군대가 시위대 7명을 살해한 뒤 한 달 동안 계속된 파업과 시위의 정점이었다. 당시 시위대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놓고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군대가 발포하자 전국에서 도로 봉쇄가 잇따랐고 볼리비아 노총(COB)이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처음에 시위는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고용주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10월 12일에 수도 라 파스 교외의 대규모 노동계급 거주 지역인 로스 알토스에서 군대가 또다시 학살을 저질렀다. 그 뒤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떤 시위대는 70명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130명이라고도 한다. 확실한 것은 학살 때문에 전체 노동계급과 농민 대중과 도시 빈민이 한데 뭉쳐 대통령인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도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로사도는 미국식 교육과 북미식 억양의 스페인어 때문에 “엘 그링고”[미국인]로

불리는 백만장자이다. 10월 17일이 되자, 볼리비아가 억압적 군사 정권이나 봉기의 성공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음이 명확해졌다. 전국에서 총파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시위대가 알 알토와 라 파스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상황은 20개월 전에 이웃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IMF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요한 대통령 데 라 루아를 쫓아낸 것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단순한 자생적 군중이 아니었다. 운동의 중심부에는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한 볼리비아 광부들이 있었다! 농민연합과 코칼레로스-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코카 재배자들-의 조직도 광부들과 함께 행진했다.

미국은 잔혹한 정권을 전폭 지지했다

볼리비아의 민중 봉기는 조지 W 부시에게 한방 먹였다. 로스 알토스 학살 바로 다음 날 미국 국무부는 황급히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도를 변호했다.

“미국 국민과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볼리비아 대통령을 지지한다. 미국은 볼리비아의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민주적 방식으로 수립된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 파스의 미국 대사관은 “볼리비아 정부가 범죄적 폭력에 기초한 정부로 교체돼서는 안 된다. 돌과 몽둥이는 평화적 저항의 수단이 아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어린이도 포함된 비무장 시위대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볼리비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잡지 <풀소>(Pulso)는 볼리비아 정부가 강경 탄압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주장했다.

볼리비아 노동자 투쟁의 역사

볼리비아는 칠레뿐 아니라 아르헨티나·페루·파라과이처럼 사회적 격변을 겪은 나라들에 인접해 있다.

1530년대: 볼리비아는 스페인에 정복당한 잉카 제국의 남부 지역이었다. 스페인 정착민들은 대토지를 차지하고 토착민들의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은광산을 지배했다.

1820년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스페인어를 말하는 엘리트들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1880년대: 세계 최대의 주석 광산이 발견됐다. 극소수 상층 가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토착민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35세였다.

1920년대: 단결한 광부들은 대규모 파업들을 일으켜 자신들의 힘을 보여 주었지만 잔혹하게 진압당했다. 그들은 지배 엘리트들에 맞선 끊임없는 저항의 선두에 섰다.

1952년: 혁명이 일어났다. 광부들은 라 파스로 행진해서 군대를 무장해제시켰다. 노동자 시민군이 결성되고, 노동자들이 광산을 통제했으며, 농민들은 대토지

를 분할했다. 그러나 광부 지도자들은 중간계급 민족주의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넘겼다. 볼리비아 자본가 계급의 필요에 맞는 개혁 조치들이 시행됐다.

1960년대: 군대가 광부들을 무장해제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광산 지역에 주둔했다. 군부 독재가 이어졌다.

1961~71년: 총파업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 투쟁 물결이 일어났다. 잠시나마 민중의회가 기존 국가 기구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운동의 지도자들이 중간계급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1952년의 실수를 되풀이했다.

1970년대: 반세르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 잔인한 탄압이 뒤따랐다.

1982년: 총파업으로 나라가 거의 내전 상황에 빠졌다. 군부는 권력을 포기했다. 중도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광산의 일자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2000년: 코차밤바에서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대중 반란이 일어났다. 시위와 도로 봉쇄로 전국이 마비된 끝에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이 승리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코칼레로스 운동의 지도자 에바 모랄레스가 광산업 백만장자 산체스 데 로사다를 거의 이길 뻔했다.

그들은 어떻게 싸웠나- '거리 전투를 준비하기'

10월 16일(목요일) 엘 알토와 라 파스의 거의 모든 하층계급 지구에서 쏟아져 나온 25만 명 이상의 노동자·민중이 정부 청사를 포위했다. 그들은 볼리비아 역

사상 가장 강렬한 증오의 대상인 백만장자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도에게 사임하고 볼리비아를 떠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산 프란시스코 광장에 모인 민중은 대중 동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사람들에게 탱크와 기관총에 맞선 거리 전투를 준비하라고 알렸다.

볼리비아 노동자센터(COB)의 지도자인 광부 하이메 솔라레스는 “각 블록의 각 지구마다 참호를 팍시다. 자위대를 조직합시다.” 하고 말했다. 대중의 구호는 어제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몽둥이를 흔들면서 “아오라 씨, 게라 시빌, 아오라 씨, 게라 시빌”(Ahora si, guerra civil, ahora si, guerra civil)(“그래, 이제 내전이다”)하고 외쳤다.

도시 중심에는 광부, 코카 재배자, 남부에서 온 농민, 학생, 교사, 연금수령자, 노점상,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다. 어떤 거리에서는 충돌이 발생해서, 최루탄, 바리케이드, 불타는 타이어를 볼 수 있었다. 최루가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거리에서는 코카 재배자들과 지역민들이 빵과 음료수를 경찰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것은 모순되기도 한, 다양한 모습을 가진 민중 봉기였다.

중간계급이 더 많이 사는 지구에서도 대통령의 사임을 바라는 기도회가 교회에서 열렸다. 이러한 저항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살해당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해결책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고 말했다.

10월 17일(금요일) 볼리비아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신자유주의 정당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리에서 잃은 것을 되찾으려 애를 썼다. 그들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퇴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여러 도시의 거리들과 전국의 도로들은 노동자와 빈민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공식 권력을 압도한 진정한 권

력이었다.

돌과 몽둥이가 탱크와 기관총을 무찔렀다. 그러나 지도자들 내부에는 카를로스 메사(새 대통령)를 당분간이라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심과 논쟁이 존재한다. 의회에서 네 블록 떨어진 산 프란시스코 광장에서는 손에 다이너 마이트를 든 광부 수천 명이 대중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10월 18일 (토요일) 대통령(로사도)은 마이애미로 날아갔다. 군대는 거리를 떠났다. 광부, 코칼레로스, 농민 들은 환호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새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함께〉 19호 2003년 11월 8일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3주 전 볼리비아에서는 민중 봉기로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는 마이애미로 달아났다. 그 사건은 지난 9월 군대가 시위대를 살해한 뒤 한 달 동안 계속된 파업과 시위의 절정이었다. 군대에 맞서 싸운 핵심 세력은 노동자들, 특히 주석 광산 노동자들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승리였다. 그러나 볼리비아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전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미국인’이라는 뜻의 “엘 그링고”라고 불리던)가 부통령 카를로스 메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10월 18일 노동조합과 기타 민중 조직 대표자 수백 명이 모여서 위대한 반란의 교훈에 대해 토론했다.

급진적 통신사 에코노티시아스(www.econoticiasbolivia.com)는 그 토론 과정을 스페인어로 상세히 보도했다. 여기에 수록한 발췌문은 아직도 진행 중인 논쟁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볼리비아 노동자센터(COB)가 주최한 특별 회의에 참가했다. COB 사무총장 하이메 솔라레스(Jaime Solares)가 투쟁 경과를 보고한 뒤, “투쟁에서 산화해 간 영웅들”을 추모하는 1분 묵념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부문별 대표자들이 발언했다. 그들은 급진적인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시민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오류와 한계가 있었길래 대중의 권력 장악이 좌절됐는가를 분석했다. 혁명 정당의 부재, 운동이 단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목표의 분산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카를로스 메사가 대통령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 회의의 주요 결론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실상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당들은 왜 실패했는가?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1980년대 후반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모두 붕괴한 것이다. 이 사태가 볼리비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에게는 치명타였던 듯하다.

그래서 볼리비아 공산당, 혁명적 노동자당처럼 전에 사회 운동과 노동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당들이 “사태에 부응해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군대에 맞서 싸운 사회단체들은 에바 모랄레스(Eva Morales)가 이끄는 사회주의 운동(MAS)과 원주민 운동(Indigenous Movement) 파차쿠티(Pachacuti)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혁명정당

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민중의 “분노”에 “압도” 당했다. 광부·공업노동자·건설노동자·교사·농민·기자·보건의료노동자·대학생·중고생·기능공·연금생활자·실업자·소농·운송노동자·주민위원회·각종 노동단체·다

른 민중 조직 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스스로를 혁명가로 여기는 우리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지도자, 어떤 정당도 이 민중 봉기를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살인자 고니[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를 밑에서부터 축출한 것입니다.” COB 사무총장 하이메 솔라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제국주의에 치욕을 안겨 준 것은 바로 격분한 대중이었습니다. … 개인과 정당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이 투쟁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에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광부연맹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노조도, 어떤 좌파 정당도 앞으로 벌어질 충돌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2일 로스 알토스(Los Altos)에서 벌어진 학살이 정부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 전쟁을 촉발시킨 기폭제였습니다. … 그 때부터 계속 투쟁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잘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업노동자연맹 사무총장 알렉스 갈베스(Alex Galvez)는 이렇게 말했다. “카를로스 메사는 부르주아지의 총견입니다. 그는 옷만 다를 뿐 [로사다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 의회의 압도 다수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 민중에게 이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려 할까요? 우리는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여전히 권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메사는 노동자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단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대표해 빅토로 타카(Victor Taca)가 “계급적 내용”이 담긴 대응

책을 호소했다. “카를로스 메사는 한 사회계급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회계급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메사도 고니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충질을 해낼 것입니다.”

도시 교사 [노조] 사무총장 하이메 로차(Jaime Rocha)는, 새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COB가 어떤 부르주아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근본 원칙 “계급의 독립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차는 이렇게 덧붙였다.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를 축출한 것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대중 봉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 메사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도 고니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혁명의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라파스 농민 연맹 사무총장 루포 카예(Rufo Calle)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자신의 정부만이 볼리비아 민중의 요구를 들어 줄 것입니다.” 이 젊은 농민 지도자의 발언은 박수 갈채 때문에 여러 차례 중단됐다. 이런 식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고원 시대 농민들의 투쟁에 감사와 존경을 나타냈다. 농민들은 한 달 동안 도로를 봉쇄했던 것이다.

카예는 대표단에게 압력을 늦추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도로 봉쇄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메사는 우리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살인자 ‘그링고’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처럼 미국으로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농민 지도자의 발언으로 논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라파스 도시 교사 [노조] 사무총장 호세 루이스 알바레스(José Luis Álvarez)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현장조합원들이 지도부에 보여 주었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영웅적으로 산화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헌법 개정만을 얻어 냈을 뿐입니다. 봉기한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 조건과 새

로운 국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가 볼리비아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 강령은, 피착취자들이 권력을 장악해 노동자·농민의 혁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볼리비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은 전부 재국유화를 통해 사회화해야 합니다. … 농민들은 토지 장악과 코카 잎 재배·산업화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강요한 교육법과 세금 관련 법률은 폐지해야 합니다. … 광부들이 모든 광산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는 박수를 받았다.

인쇄노동자총연맹의 렘베르토 카르데나스(Remberto Cardenas)는, 피착취자 계급과 피억압 소수인종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소외된 일부 중간계급이 투쟁 속에서 “사회적 단결”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 단결이 확대되고 COB가 이를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 장악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 대사가 한 구실을 인식한 것이었다. 연금생활자 단체의 지도자 한 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미국, 미주기구(OAS), 남미와 세계의 우파 정부들은 [볼리비아] 군대와 정부가 합동으로 자행한 학살을 지지했습니다.”

하이메 솔라레스는 미국이 혁명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고했다.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침략 상황에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현재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진전시키는 길은 “미래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부가 현장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고원 지대, 인가스(Yngas), 광업 중심지, 엘차파레(EI Chapare)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이 “자위”를 위한 권력 기구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런 기구들이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미묘한 주제는 회의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이메 솔라레스는 “현장조합원들이 정의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음 투쟁에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도부를 단호히 갈아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 시간 넘는 논쟁 끝에 COB 회의는, 운동이 새 대통령에게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고 “전술적 후퇴”를 하기로 결의했다. 11개 단체가 이 견해를 지지했다. 8개 단체는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했다. 10개 단체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전히 커다란 투쟁이 도사리고 있으며 모든 지도부는 시험대에 설 것이다.

회의 후 COB 지도부는 새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부패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신다면 우리도 지지할 겁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들은 또, “대통령이 여러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정부의 문은 COB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들은 “메사가 신뢰를 보여 주는 한” COB의 문도 “그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농업노동자총연맹(CSTUCB)의 지도자 “말쿠” 펠리페 키스페 (“Mallku” Felipe Quispe)는 메사에게 인디오 농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90일의 시간 여유를 주겠다고 하며, 그렇지 못하면 “메사는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봉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사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

한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파스의 농업노동자들은 항의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다함께〉 57호 2005년 6월 8일

볼리비아 민중항쟁이 대통령을 몰아내다

6월 6일 볼리비아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가 사임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민중 항쟁이 결국 메사를 몰아낸 것이다.

지난 5월 16일 볼리비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는 시위, 점거, 도로봉쇄 등의 투쟁이 분출했다.

수도 라파스와 인근 원주민 밀집 지구인 엘알토의 빈민가에서 몰려나온 시위대가 관공서들을 평화적으로 “접수” 한 채 국회를 폐쇄해버리고 대통령을 퇴진시켰다고 위협했다.

볼리비아노총(COB)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볼리비아의 천연가스를 되찾고 싶어한다. 그들은 볼리비아인들을 위한, 볼리비아인들의 대통령을 원한다.”

코차밤바 시 남부에서는 가스수호회복연합이 학생 단체들, 농민 단체들, 다른 사회 단체들과 함께 정유공장을 “상징적으로” 접수했다. 가스연합 지도자 오스카 올리베라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것은 마지막 ‘상징적’ 접수다. 다음 번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국가 재산을 되찾고 운용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 점

수를 감행할 것이다.”

라파스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인 고산지대에서는 농민들이 라파스로 이어지는 도로를 점거하고 봉쇄해버렸다. 엘알토에서는 시의원들조차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메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메사의 사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다. 지난 4월 에콰도르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에 이어 메사도 쫓겨남으로써 라틴아메리카는 다시 한번 정치적 충격에 휩싸였다.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지만,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서는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코차밤바 시에서는 소농, 시장 상인, 노동자, 원주민 등의 대중 운동이 정부의 물 사유화 계획을 철회시켰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물 사유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차밤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해야 했다.

물 사유화는 볼리비아의 자원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방’ 하려는 더 광범한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 전략에는 이른바 ‘마약 전쟁’도 포함돼 있었다. 마약 전쟁의 주된 표적은 고산지대에서 코카를 재배하는 소농들, 즉 코칼레로스였다.

이 소농들은 대부분 고산지대의 주석 광산들이 폐광된 뒤 토지를 불하받은 광부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영웅적인 노동계급 투쟁의 전통이 강력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런 집단적 투쟁의 기억을 간직한 채 농촌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코차밤바 항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코차밤바 항쟁은 또 당시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로사다는 물과 천연가스 사유화 전략을 적극 추진한 데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맹종하는 자였다.

코차밤바 항쟁은 사회적 저항의 확산이 시작됐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로사다의 경제 정책들 때문에 타격을 입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회적 저항에 가담했다.

2003년에 그들은 수도 라파스 인근의 원주민 밀집 거주 도시 엘 알토에서 로사다와 다시 대결했다.

9월에 볼리비아 전역에서 50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천연자원을 외국 자본에 넘기지 말고 국가가 계속 통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군의 발포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 엘 알토에서는 총파업이 선포됐다. 충돌이 격화됐고 엘 알토와 여타 지역들에서는 새로운 민중 권력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월 12일 시위 도중 31명이 살해당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로사다는 카를로스 메사로 교체됐다.

그러나 메사 집권 후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2004년 중반에 파업과 도로봉쇄가 다시 시작됐다. 메사의 대응은 새로운 석유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국민의 압도 다수는 국가가 석유를 통제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올해 초 메사는 다국적 석유회사들, 특히 비피 아모코와 스페인의 렉솔에게 석유와 가스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3월 초에 메사는 대통령직 사퇴와 8월 조기 총선을 협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이었지만, 코칼레로스의 지도자 모랄레스 같은 사람들조차 '사회 안정'의 허울 아래 일시적으로 메사의 책략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의 석유 통제와 2003년 10월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저항과 운동은 계속됐다. 그들은 국회와 대통령이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이윤에 50퍼센트의 세금을 매기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4월에 국회가 통과시킨 탄화수소법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물론 좌파들은 이 법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충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메사는 이 법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해 새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5월 투쟁을 주도한 세력들은 요구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3월에 시위대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요구했을 뿐 메사의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달 뒤에는 보상 없는 전면 국유화와 메사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실현시켰다.

대통령을 쫓아낸 반란

볼리비아에서는 3년 동안 대중 운동이 두 명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농민·노동자·학생 들이 라 파스, 수크레 등 대도시들에서 힘을 결집하고 의지를 과시하자, 카를로스 메사가 6월 6일에 사임했다.

진정한 적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볼리비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계 자본은 메사와 그의 전임자를 가장 신뢰했는데, 볼리비아의 주요 천연 자원인 석유와 가스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1999년에 세계 자본이 눈독을 들인 것은 물이었다. 백텔 같은 거대 사기업들이 전국적인 물 공급을 지배하려 했다. 2005년에는 영국가스와 스페인 석유기업 렉솔이 볼리비아의 가스를 지배하고 싶어했다.

6년 전에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물 사유화를 저지했다. 코차밤바의 대중 반란이 다국적기업들을 몰아냈다. 지금은 선출된 관리위원회가 물을 배급한다. 그 승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빈국들에서 새로운 저항 운동이 시작됐음을 뜻했다.

투쟁은 여러 전선들로 확대됐다. 수자원 다국적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몰아낸 연합체는 볼리비아의 석유와 가스를 국유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주도했다.

그와 동시에, 원주민 권리 획득 투쟁의 전투성이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 9월에 이 두 세력이 단결하자 정부는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다. 60여 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투쟁은 계속됐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악명을 얻었던 대통령 로사다가 물러났다.

그의 후임인 카를로스 메사는 가스 관련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가스 산업을 국유화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협정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지난 3월에 볼리비아 의회는 다국적기업들이 지불하는 18퍼센트의 사용료(로열티)에 32퍼센트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운동의 요구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던 메사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5월 중순에 대중 운동은 정치권의 권모술수에 염증을 느꼈고, 새로운 저항 운동이 국유화라는 간명한 요구를 걸고 등장했다.

엘 알토는 원주민 인구가 1백만 명이고, 수도 라 파스보다 약 3백 미터 높은 고원지대다. 그 곳에서 일어난 무기한 파업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음을 뜻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조직된 저항의 역사는 오래됐다.

그들의 대다수는 볼리비아노총(COB)의 핵심 기반이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 벌어졌던 페광 지역 출신들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펠리페 퀴스페가 이끄는 아이마라[페루와 볼리비아의 인디오] 권리 운동의 중심이었다. 아이마라는 볼리비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금 엘 알토는 또다시 전국적인 운동의 중심이다. 그러나 2003년과 2005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COB와 노동조합들, 특히 교사 단체들이 학생, 주택조합,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광범한 동맹의 주축이다.

위기가 심화하자 차파레 코카일 재배농들의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가 점점 더 중

요한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모랄레스는 MAS(사회주의운동당)의 지도자이고, 물 사유화 전투를 이끌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는 2002년 대선에 출마해 2위(22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그 뒤 중앙 정치무대로 옮겨갔다. 그는 국유화 요구를 거론하지 않았고, 50퍼센트의 로열티를 물리자고 주장했다. 그리 되면 더 많은 돈이 정부 금고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자원 통제권은 다국적기업들의 수중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자, 5월 말에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요구들, 제헌의회, 지방자치를 놓고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타협안이었다. 그리고 모랄레스는 타협안을 지지했다.

사실, 그것은 운동의 명확한 요구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지방자치는 무제한 요구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많은 가스가 발굴될 예정인 산타 크루스를 중심으로 한 볼리비아 동부 지방에 대한 기업주들의 강력한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모랄레스에게 중요한 문제는 차기 선거 결과다. 그의 관심사는 중간계급 지지 기반이 약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섬뜩하리만치 낯익은 느낌을 준다.

이것은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키르히너의 주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훨씬 더 극적인 것은, 대중 운동의 지지 덕분에 2000년에 에콰도르 대통령에 선출됐던 루시오 구티에레스의 처지였다.

구티에레스가 약속을 어기고 세계 자본과 거래하는 데 매달리자 거대한 대중 저항이 일어나 일주일 만에 구티에레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카를로스 메사의 사임은 언젠가는 닥칠 일었다. 그를 상원의장 바카 디에스 — 산타 크루스 경제인연합회의 중심 인물 — 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대중적 반발 때문에 좌절됐다.

대법원장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새 임시 대통령이 됐다. 선거에 모든 희망을 걸면서 관을 깨지 않으려는 모랄레스 같은 사람들은 로드리게스를 친개혁파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운동은 오랜 기억을 갖고 있다. 지금 전국적인 시위와 저항에서 등장하는 슬로건은 단순명쾌하다.

첫째, 1조 5천억 세계공미터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 천연가스의 국유화. 둘째, 그 부가 전체 볼리비아인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 줄 혁명적 민중의회.

민중의회는 한 달 동안 계속된 동원에 참가한 기층대중의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의 기구이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권력과 국가를 뜻할 것이다.

누가 통제하든 간에 자본주의 정부는 생존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궁의 새 주인들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봤다. 운동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비전이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라 파스와 엘 알토의 거리에 뿌려졌다.

“우리는 볼리비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에 ‘물과 가스를 지키기 위한 코차밤바조정위원회’가 세계 운동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초국적기업들, 미국 정부, 산타 크루스의 상류층, 볼리비아 기성 정당들의 책략을 잠시 꺾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광부노조 지도자 후안 코로의 희생 끝에 우리는 바카 디에스 일파의 대통령 승계를 저지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볼리비아 민중은 대학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세계 자본의 막강한 힘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 시도를 잘 저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석유·가스의 국유화와 제헌의회 수립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목표를 정치인들에게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치정부 수립 역량을 건설할 필요성을 놓고 코차밤바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힘과 우리의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창발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정, 가스공장, 정유회사를 점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볼리비아 운동

6월 10일에 진 프리드스키는 볼리비아 운동 내 논쟁을 <나르코스피어>[narcosphere, narconews.com]에 기고했다.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 운동은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투쟁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전투를 지속할 것인가? 3주 동안 전투를 벌인 지금, 볼리비아는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의회가 몇 주 동안 국정 임무를 방기하는 바람에 국가 권력은 공백 상태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다.

워싱턴이 볼리비아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걱정이다. 대륙의 민중은 1980년대 동안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MAS는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 국유화가 MAS의 진정한 의제가 아닌 데다, 새롭게 제안된 선거가 MAS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수크레에서 돌아와 거리를 점거할지도 모른다. 엘 알토의 지도자들은 지지자들을 소집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동의가 있다 — 투쟁은 계속된다.”

*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라틴아메리카 소식을 더 보려면 narcosphere.narconews.com을 방문하십시오.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 볼리비아는 19세기 초 시몬 볼리바르의 부관 수크레가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

고 건설한 남아메리카 국가이다.

*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석 생산량 세계 2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빈곤발생률이 64퍼센트이며, 농촌지역 빈곤이 특히 심각해서 빈곤발생률이 82퍼센트에 달한다.(2004년 기준)

* 인구 중 60퍼센트 가까이가 다양한 원주민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아이마라족(25퍼센트)과 케추아족(30퍼센트)이 가장 크다. 인구의 15퍼센트를 구성하는 스페인 후예들에게 대부분의 부가 집중돼 있다.

* 볼리비아 정치는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다. 독립 후 150여년 동안 무려 190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1952년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대중 투쟁이 폭발해 왔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롤라가 될 것인가?

앞으로 5개월 안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큰 “볼리비아의 체게바라” 에보 모랄레스와 그가 이끄는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좌우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01년 12월 당시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는 모랄레스를 오사마 빈 라덴에 비유하고 그의 지지 기반인 코카 잎 재배농들(코칼레로스)을 “안데스의 탈레반” 이라고 불렀다.

또, 2003년에 볼리비아 국방장관은 MAS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한테서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우파들은 그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해 볼리비아노총(COB) 지도자들은 모랄레스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COB에서 축출했고, 지난 5~6월의 민중항쟁 기간에 엘 알토 지역노동자연맹(COR)은 모랄레스가 농민들의 동원을 가로막는 “배신” 행위를 했다고 그를 엘알토 민중의 “적”으로 선언했다.

모랄레스의 전통적 지지 기반은 코칼레로스, 특히 볼리비아 중부 차파레 지역의 코칼레로스이다. 그들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 IMF가 볼리비아에 강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탄광이 폐쇄돼 일자리를 잃은 광부 출신이다. 광부노조의 전투적인 계급투쟁 기억과 전통을 잃지 않은 그들은 1980년대 말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들의 세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대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정부의 강압적인 코카 잎 재배 근절 정책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MAS가 등장했다.

모랄레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랜 배신 경험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정치 체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995년 코칼레로스 전국대회에서 ‘민중의 주권을 위한 정치 기구’가 탄생했고, 이 조직은 1997년 선거에 MAS라는 이름으로 정당 등록을 하고 후보를 내보냈다.

MAS의 창립자이자 이론가인 안토니오 페레도 레이구에는 MAS가 “원주민들, 맑스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모순된 결합체”라고 말했다.

MAS의 초창기는 원주민들이 주도한 계급투쟁의 전환기와 일치했다. 2000년 초에 코차밤바에서는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이 분출했다. 그 뒤 저항은 라 파스 인근

고원지대의 아이마라 원주민들에게로 확산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랄레스는 21퍼센트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하는 대 성공을 거두었다. 1위와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1.5퍼센트였다. 그 선거는 원주민들의 중앙 정치무대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원주민이 인구의 62퍼센트나 되면서도 정치 권력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종 차별도 심각했던 나라에서 이것은 “상징적 혁명”이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성공 전후로 MAS는 우경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에서 모랄레스가 성공을 거둔 이후 MAS는 거의 모든 노력을 2007년 대선 승리와 집권을 위해 쏟아부었다. 이런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2003년 10월 민중항쟁 때였다.

당시 MAS는 로사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뒤 새 정부 구성을 주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MAS는 부통령 메사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사의 정책이 로사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MAS는 아래로부터의 민중 반란 물결에 떠밀려 집권할 경우 미국 제국주의와 정면 대결하게 될까 봐 우려했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혁명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

MAS는 비록 메사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메사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S와 다른 좌파들 사이의 틈은 2004년 7월 실시된 가스 국유화 국민투표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메사는 국민투표 용지에서 ‘국유화’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회피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원주민 정당 파차쿠티원주민운동당(MIP)의 지도자 펠리페 키스페와 COB 지도자 하이메 솔라레스 같은 좌파들은 국민투표가 메사의 속임수

라며 보이콧을 주장한 반면, MAS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모랄레스는 COB에서 축출당했다.

그러나 9월에 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며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오자, MAS는 좌경화하기 시작했다. 모랄레스의 말도 더 급진적으로 바뀌는 듯했다. 그는 메사가 “로사다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좌경화의 핵심적 요인은 모랄레스 지지자들의 불만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그가 가스 국유화를 반대하는 등 기회주의적 과오를 범하거나 정치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취한 것 때문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12월 메사가 유류세를 인상하자 모랄레스는 메사야말로 “최대의 적”이라고 선언한 뒤 전국적인 시위를 호소했다. 올해 3월 가스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려 하자 모랄레스는 시위와 도로 봉쇄 투쟁을 호소했다.

한동안 MAS, COB, 엘 알토 지역위원회연맹(FEJUVE), 다른 좌파들이 다시 단결해 민중 운동 지도부를 재구성하고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런 단결은 5~6월 항쟁 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모랄레스는 처음에 국유화가 아니라 로열티를 50퍼센트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중항쟁이 계속되자 태도를 바꿨다.

의회 봉쇄와 메사 퇴진 요구를 둘러싸고 더 큰 분열이 일어났다. 급진 좌파들은 이런 요구를 지지했지만, 모랄레스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를 봉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사가 사퇴하지 말고 가스를 되찾고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노동자와 민중은 의회를 봉쇄하고 결국은 메사를 퇴진시켰다.

모랄레스와 MAS의 지그재그를 보면 그들의 정치가 혁명적 사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도주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적 본질은 아직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았고 수많은 볼리비아 대중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모랄레스와 MAS에게 그저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그 지지자들에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올바른 정치 전략·전술이 아니다.

볼리비아인들의 다수를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견인하고 그들을 진정한 최종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벌이는 투쟁들에 동참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혁명적·민주적 사회주의를 미국 제국주의와 볼리비아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면서 그런 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 노동자 투쟁의 역사

볼리비아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아마도 남미 전체에서 으뜸일 것이다. 그들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국가 지배 엘리트들에 맞서 거듭 공세를 벌여왔다.

1952년에 볼리비아 광부들은 수도인 라파스로 행진했고, 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노동자들은 광산을 장악했고 부유한 지주들의 재산을 가난한 무토지 농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볼리비아의 주요 노조 — 볼리비아노총(COB) — 와 산하 노동자 시민군이 기업주들의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대안 권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결국 혁명 운동의 지도자들은 중간계급 정치인들에게 의탁했고, 이들은 곧 혁명을 좌초시키고 볼리비아 자본주의의 강화를 추구했다.

1970~1971년에 노동자들은 다시금 볼리비아 기업주들의 권력에 도전했다. 군대와 지배계급 내의 분열 덕분에 COB와 국영노조연맹, 좌파 정당, 학생 단체, 농민 단체들로 이뤄진 공동전선이 민중의회를 소집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엔 노동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계 지도자들은 “진보적 군 장교들”이 운동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정당들은 민중의회의 개혁 요구를 제한하는 밀실 협정을 맺었다. 비극이게도, 그 결과는 우익 쿠데타와 야만적 군사독재 정권의 등장이었다.

1980년대 중반,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한 1만 명의 광부들이 수도 라파스에 다시 등장했다. 그들은 정부 청사들을 점거했고 농업 노동자, 학생, 도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 정부”에 대한 환상이 다시금 사회 변혁의 희망을 가로막았다. 라파스를 장악했지만 광부들은 그러한 전투성으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혁명적 시기마다 볼리비아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소위 개혁적 성향의 중간계급 정치인이나 “진보적” 군장성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 때문에 혁명이 패배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함께〉 70호 2005년 12월 24일

볼리비아 대선 결과 -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배

12월 18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이하 MAS)의 에보 모랄레스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고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모랄레스의 당선은 볼리비아에서 20여 년 전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파산 선고일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배해 온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타격이다(〈다함께〉 58호의 관련 기사들 참조).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 이 신문의 지지자를 포함해 — 볼리비아 대선 결과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 자체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모랄레스의 핵심 대선 공약은 천연가스 국유화다. 그러나 그는 국유화가 강제수용이나 몰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천연가스가 주로 매장돼 있는 산타 크루스 지역의 지배 엘리트들은 중앙 정부가 자신들의 천연가스 지배권을 위협하면 분리·독립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또, 모랄레스의 러닝메이트인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볼리비아에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적어도 50년에서 1백 년 동안 볼리비아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와 리네라는 자신들이 당선하면 볼리비아에서 일종의 ‘국가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모랄레스와 리네라가 말하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다국적기업들의 횡포와 폐해를 막고 막대한 천연가스 소득을 재분배하는, 대체로 케인스주의적인 정책들을 가리킨다.

모랄레스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술이 필요하다”며 “다국적기업들의 서비스에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볼리비아의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파트너로 환영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랄레스가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2000년 코차밤바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의 지도자 오스카르 올리베라 같은 전투적 활동가들은 모랄레스를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

2003년 10월 가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민중항쟁으로 당시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가 쫓겨날 때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혁명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다”며 대중 투쟁을 진정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런 행동은 지난 5~6월 로사다의 후임자 카를로스 메사를 쫓아낸 민중항쟁 때도 되풀이됐다. 당시 사회운동들과 혁명적 좌파의 핵심 요구는 천연가스 국유화였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메사의 퇴진이 확실해진 마지막 순간에야 국유화 요구에 동의하더니, 그 뒤에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기 선거 실시 방안에 합의해 줬다.

그래서 올리베라는 모랄레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해 온 것처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대중의 힘을 꾸

준히 기르는 것이다.”

또, 파차쿠티원주민운동(MIP)의 지도자 펠리페 키스페나 두 차례 민중항쟁의 핵심 근거지였던 엘 알토의 지역위원회연맹(FEJUVE)과 지역노동자연맹(COR) 지도자들도 모랄레스와 MAS중심의 좌파 선거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다.

앞으로 모랄레스 정부는 이런 왼쪽의 압력과 (국내의 지배계급들에 의한) 오른쪽의 압력 사이에서 줄타기할 것이다.

엘 알토의 활동가인 호르헤 추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모랄레스가 운동의 강령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층 대중의 투쟁과 운동만이 평범한 볼리비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 71호 2006년 1월 14일

모랄레스는 어디로?

12월 18일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한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해외순방에 나섰다. 분명 모랄레스의 소탈한 복장과 급진적 발언은 보통의 부르주아 정치인들과는 다른 ‘좌파 대통령’ 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줬다.

반면, 유럽의 자본들은 이것을 모랄레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인 하비에르 솔라나는 모랄레스의 석유자원 국유화 공약을 문체 삼으며 볼리비아가 “법적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석유기업 랩솔은 볼리비아 의회의 비준 없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볼리비아의 자원을 채취해 막대한 부를 챙겼다.

불행히도 모랄레스는 이런 위선에 정면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BBC의 평가에 귀 기울일 만하다.

BBC의 라틴아메리카 분석가인 제임스 페인터는 모랄레스가 미국에 대한 전통적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나라, 특히 유럽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모랄레스는 석유 기업들을 접수하거나 쫓아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거래 조건을 바꿔 볼리비아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랄레스는 스페인에서 사파테로 총리와 잠시 불편한 모양을 취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시라크에게 아부했다.

자크 시라크와 절친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시라크의 우파 정부는 11월 대규모 소요 이후 포퓰리즘 행보를 걷고 있다. 모랄레스는 시라크의 이런 수작에 맞장구쳤다.

가장 중요한 방문지는 마지막 방문지인 브라질일 것이다. 볼리비아의 부유한 동부 지역(산타 크루스 포함)은 브라질 경제와 거의 통합돼 있는 상태다.

산타 크루스의 우파 부르주아들은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 룰라가 모랄레스에게 압력을 가하기를 바랄 것이고, 룰라는 그럴 것이다. 브라질 최대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볼리비아 자회사가 국유화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모랄레스는 순방을 떠나기 전 산타 크루스의 부르주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타 크루스 분리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실, 모랄레스의 ‘국유화’는 운동이 요구한 국유화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는 스페인 방문 중 유럽 자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국유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을 정복하거나, 몰수하거나, 내쫓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고 말했다.

볼리비아의 한 석유 산업 전문가는 모랄레스가 말하는 국유화란 국가가 석유 산업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석유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 정부가 수입국과 석유 수출 가격을 직접 협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예측일 뿐이다. 미래는 모랄레스가 귀국 후 직면할 볼리비아의 치열한 계급투쟁 수준에 달려 있다.